

세종

풍요로운 삶,
품격있는 세종

“
상상이
일상이 되는 세종
”

39만명 돌파!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수



세종시 자율주행 모빌리티

글로벌 홍보단 세종프렌즈



2023
03

통권 127호

지금 세종은

세종시 현재 인구 수

390,267명



*출처: 시 누리집 세종통계DB / 2023년 2월 20일 기준

대중교통 이용객 수

1,405,603명



*출처: 세종시 교통빅데이터시스템
2023년 1월 21일 ~ 2023년 2월 20일 기준

세종시 주요경제상황

고용률

64.4%

2.6%p
증가

67.0%

실업률

2.5%

0.2%p
감소

2.3%

취업자 수

18만 명

2만 명
증가

20만 명

1년 전

현재

*출처: 통계청 / 2023년 1월 말 기준

공공자전거 어울링 이용건 수

110,989건



*출처: 세종시 공영자전거 운영시스템
2023년 1월 21일 ~ 2023년 2월 20일 기준

금강보행교 총 방문자 수

890,780명

걸어서
578,790명

자전거 타고
311,990명

*출처: '세종엔'앱 / 2023년 2월 20일 기준(누적 수치)

세종시 시정소식지의 신규신청, 주소변경, 구독취소, 독자마당 투고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발행인 세종특별자치시장 | 편집인 공보관

민원콜센터 044-120 | 팩스 044-300-2629 | 전자우편 sejongstory@korea.kr

시 누리집 www.sejong.go.kr | 소식지 누리집 news.sejong.go.kr



news.sejong.go.kr

▲ 소식지 누리집



▲ 세종시청 투자유치단



▲ 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 02 **지금 세종은**
- 04 **세종이 미래다**
상상이 일상이 되는 곳, 세종을 말하다
- 08 **시정 더하기**
세종시청 신설부서 소개를 소개합니다_투자유치단
- 10 **세종사용설명서 1**
스마트한 세종에 어울리는 공영자전거 '어울링'
- 12 **세종사용설명서 2**
세종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홍익메이커랜드'
- 14 **맛있는 세종**
봄의 나른함을 건강하게 이겨내는 '봄나물'
- 16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제5회 기업인의 날 유망중소기업 선정 기업_리봄화장품㈜
- 18 **특별한 세종**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정부세종청사
- 20 **세종소식**
- 24 **의회소식**
- 28 **세종사람들**
은용골농장가든 이야기
- 29 **반려식물 상담소**
이달의 반려식물_몬스테라
- 30 **알림마당**
- 32 **세종문화누리**
- 34 **행복더하기**
- 35 **독자마당**

상상이 일상이 되는 세종

미래전략수도 세종시는 시민과 함께 상상을 일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월호 표지는 세종시 인구 39만명 돌파를 축하하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의 참여로 진행 중인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과 국제도시 세종을 알리는 글로벌 홍보단 '세종프렌즈' 등으로 꾸몄습니다.

미래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세종시의 이야기, 지금 한번 만나보실래요?



상상이 일상이 되는 곳, 세종을 말하다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기술들은 오래전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것이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묘사됐던 미래가 일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것을 상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래전략수도를 꿈꾸는 세종시에도 상상을 일상으로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다. 자율주행, 수요응답셔틀 등 '스마트 모빌리티(이동수단)' 서비스를 주제로 한 시민 주도형 연구모델인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참여자들을 만나 미래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세종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도시 조성단계부터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이 대거 적용되는 미래형 도시로, 지난 2018년 세종시와 부산시가 선정됐다. 세종시는 5-1생활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미래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세종시 1생활권에서는 5-1 생활권에 도입될 미래모빌리티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인 조정우 박사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

Q 먼저,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A 세종시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면서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등 7가지 혁신요소를 선정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혁신요소는 바로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데 근간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이죠.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은 세종 스마트시티에 도입될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세종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사전에 이용해보고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함께 개선해나가는 활동을 말합니다. 2020년에는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첫 번째 리빙랩이 진행되었고요, 2022년에는 진행한 두 번째 리빙랩에서는 실증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Q 리빙랩에서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나요?

A 이번 리빙랩의 활동은 크게 워크숍과 현장 체험으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 먼저 워크숍은 네 차례에 걸쳐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 구현될 것인지 시민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리빙랩에서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수요응답형 서비스, 편도형 공유차, 전기자전거 등을 하나의 앱(App)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모빌리티(MaaS, Mobility as a

Service)’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해도 향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현장 체험에서는 워크숍을 통해 이야기 나눈 모빌리티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181명의 시민이 참여했는데, 현재 개발 중인 통합모빌리티 앱을 직접 사용해 정해진 경로를 이동하거나 1생활권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해보는 체험이었죠. 이외에도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함께 관람하거나 그동안의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회를 여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Q 리빙랩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소감이 궁금합니다.

A 그동안 세종시에서 관련 연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세종시민들이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 수준에 머물지 않고 기술적인 피드백과 함께 많은 격려를 받은 것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연구자로서 그런 시민 참여단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피드백은 매우 큰 힘이 됐습니다. 또한, 다양한 모빌리티를 하나로 묶어서 제공하는 통합모빌리티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거의 없는 선도적인 연구이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 연구를 이끌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 김태형 센터장을 비롯해 선배 연구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교통체계 구축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Q 향후 목표와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A 세종시는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해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와 자율주행 인프라 등 이미 설치된 인프라가 많고, 시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중앙부처와 국책 연구기관이 모두 세종시에 있는 점도 새로운 교통체계 연구에 매우 유리한 부분이고요. 이런 장점을 기반으로 현재 파편화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쉽게 이용하고,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합모빌리티 연구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연구이자 세종시민으로서 세종시가 스마트시티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1차 현장 체험에 대해 설명 중인 조정우 박사



리빙랩은 시민이 스스로 일상의 문제를 찾고, 스마트기술 등 새로운 해결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주도형 연구 모델이다. 이번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에는 세종시티앱 등을 통해 모집한 100여 명의 세종시민이 참여했다. 2022년 5월부터 6개월여간 진행된 워크숍과 현장체험 등에 적극 참여해 우수참여자로 선정된 이승호 씨와 이광준 씨를 만났다.

Q 어떤 계기로 리빙랩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 이승호 가족과 함께 호수공원에 산책을 왔다가 근처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리빙랩에 대해 알게 돼 참여했습니다. 제가 전기차를 타면서 전기차 관련 협회 활동도 하고 있고, 평소 자율주행차량에 관심이 많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쁜 직장생활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 리빙랩 활동에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A 이광준 저는 세종시가 고향인데요. 서울에서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세종시로 다시 온 이후에 고향인 세종시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에 늘 관심이 많았습니다. 횡단보도 LED, 미세먼지



먼지 측정, BRT 도로의 차량 속도 및 문자 안내 등의 서비스를 선정하는 시민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세종시티앱을 통해 '행복도시 리빙랩'과 같은 리빙랩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Q 리빙랩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활동 소감이나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A 이광준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활동은 가족들과 함께 모빌리티 체험을 했던 것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참가했던 일입니다. 엑스포에서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을 미리 경험해보면서 그저 멀게만 느껴졌던 미래의 모습들이 점점 일상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A 이승호 세종시티앱과 온라인 카페를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에 관한 다양한 후기를 남기고 궁금해 하는 시민들에게 열심히 설명해줬던 일이 생각납니다. 체험활동을 하면서 자율주행셔틀을 탔던 것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운전기사의 조작 없이 자율주행을 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운행이 되더라고요.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로 거듭날 세종시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Q 리빙랩 참여수단인 세종시티앱은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는 편인가요?

A 이승호 리빙랩 활동 이외에도 '정책 제안'이라든지 '세종투표' 메뉴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참여합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중 하나인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의 운행 노선을 확대해달라는 정책 제안을 한 적도 있어요. 시티앱에서 '덧글'과



▲ 시민참여단과 함께 현장실증 중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좋아요’를 달 수 있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많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시민 제안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의 피드백과 정책 반영이 빠르게 이어진다는 점도 좋았고요.

① **이광준** 저는 세종시의 다양한 서비스나 앱으로 바로 접근할 수 ‘앱서랍’ 기능을 자주 이용합니다. 세종시티앱에 참여하다 보면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이를 세종시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환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② **리빙랩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이자 세종시민으로서, 세종시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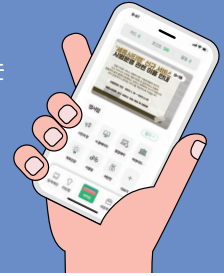
① **이광준** 세종시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서비스들의 시험대로써 좋은 조건을 갖췄다고 봅니다. 이번 리빙랩과 같은 활동들이 활성화되어서 좀 더 많은 시민이 스마트시티로 거듭날 세종시의 미래를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이 세종시에 투자하고 창업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서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② **이승호** 현재 구축 중인 5-1생활권의 국가시범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의 다른 생활권으로 서비스들이 점차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1생활권에 스마트 횡단 보도와 스마트 교차로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구축된 것처럼, 스마트 서비스들이 세종시 전반에 잘 구축되어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세종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종시민의 일상을
더욱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세종시티앱을 소개합니다!



① 모바일 세종시민증

모바일 세종시민증을 통해 신분증 없이 세종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내 공공-민간시설 이용 시 세종시민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 국·시립도서관, 베테랑파크 등에서 이용 가능
[*추후 서비스 범위 확장 예정]

② 정책제안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세종시티앱의 정책제안 기능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안내용은 시민, 전문가 등으로부터 공감 및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세종시 관계부서에 하나의 정책으로 접수됩니다.



제안이 선정되면 참여포인트를 15,000 포인트 지급

③ 리빙랩

세종시티앱 리빙랩을 통해 시민·공공-전문가 간 거버넌스를 온라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해결 방안을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의견공유, 활동과정, 평가성과 등 체계적인 기능 제공

④ 세종투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적용된 ‘세종투표’는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책의사 결정을 지원합니다.



시민이 직접 투표를 등록하여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진행 가능

⑤ 인센티브 시스템

다양한 리빙랩, 정책제안, 정책투표 등 시민참여 활동을 통해 참여포인트를 5,000 포인트 이상 적립하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화폐(여민전)로 전환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적립한 참여포인트는 복지단체 기부 및 다양한 서비스에 사용 가능
[구현 예정]

“세종시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세종시청 투자유치단



세종시는 시정 4기의 핵심과제인 자족경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기업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기업 투자유치와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중점 업무로 하는 투자유치단을 신설하고 과감한 투자유치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세종시의 미래 투자가치를 알리기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는 투자유치단의 김남경 단장을 만나 향후 계획과 각오를 들어봤다.

Q 투자유치단의 신설 배경이 궁금합니다.

①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투자유치단’ 단장 김남경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행정수도로서의 기반을 다져왔는데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도시 인프라도 신속하게 갖춰졌지만 자족기능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또한 오는 2030년까지 80만 인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행정수도를 뛰어넘어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투자유치와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중점 업무로 하는 투자유치단을 신설했습니다.

Q 투자유치단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① 투자유치단은 세종시로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투자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투자유치, 규제완화, 투자발굴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기업 투자유치 업무와 창업벤처기업 발굴·육성 업무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기업 투자유치 업무는 우수·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외 홍보(IR, Investor Relations)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진행하고, 가칭 ‘세종미래전략펀드’를 조성하는 등 유치지원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종미래전략펀드는 유망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40억 원 출자를 시작으로 3년간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축인 창업벤처기업 발굴·육성 업무는 미래를 선도할 창업벤처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 향상 지원, 판로개척 및 제품 상용화 지원, 기업 보육 공간 제공,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촘촘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정 4기의 방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투자가치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시민들이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투자유치단 김남경 단장

Q 신설 첫해인 올해 주력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① 올해는 투자유치단이 신설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해인만큼, 투자유치 1조 달성을 목표로 과감하고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전국의 우수 기업들에게 세종시가 미래가치가 있는 좋은 투자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업종별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기업간 일대일 맞춤형 투자 상담 등 직접 현장을 발로 뛰어 기업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올해 상반기 중 ‘투자유치실무지원단’을 구성해 기업 이전 시 입지 선정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원스톱 투자지원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Q 우리 시에 특화된 투자유치전략도 궁금합니다.

① 현재 세종시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전문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종-대전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보안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투자유치단도 관련 분야의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우리 시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환경 문제, 교통 체증은 No!

스마트한 세종에 어울리는 공영자전거 ‘어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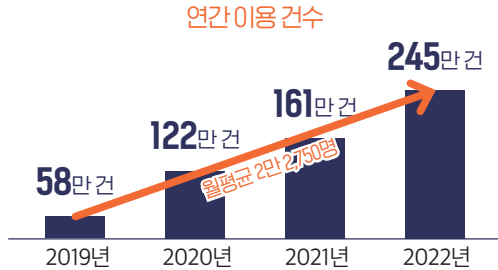
세종시가 운영 중인 공영자전거 ‘어울링’이 시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 이용하는 시민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원하는 곳에서 쉽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남녀노소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 공영자전거 어울링에 대해 알아보자.

간편하고 빠르게 이용하는 세종시 자전거

만 15세 이상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나(만 19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 필요) 이용할 수 있는 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은 편리한 이용 방법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이 없는 녹색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2014년 서비스 시작 이후 해마다 이용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무인대여단말기(키오스크)로 대여·반납했던 1세대 어울링을 보완한 ‘뉴어울링’도 등장했다. 이제는 ‘어울링 앱’을 통해 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 대여와 반납이 가능해 일반 자전거 거치대를 대여소로 이용하는 등 기존보다 편의성과 활용성이 높아졌다.

숫자로 알아보는 어울링

(2023년 1월말 기준)



스마트폰으로 어울링 이용하기



잠깐, 어울링 이용 전 꼭 확인

하나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

둘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에 공기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

셋

안장 높이



안장이 잘 고정되었고,
높이가 적당한지 확인!

넷

자전거 안전 법규 준수



음주 후 이용 금지,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
안전 수칙 지키기!

✓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세종시 시민 자전거 보험

세종시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포함한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사망, 후유장애 보험금을 보장한다. 세종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세종시민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보장 내용: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사고와 관련된 사망, 후유 장애, 상해(입원)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지원

적용 범위 및 기간: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전거, 전기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사고 보장기준은 기존 자전거 보험과 동일(단, 공유형/영업용 이동장치는 제외)

문의: 시 교통과 ☎ 044-300-5542



나만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세종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홍익메이커랜드’

일상 속에서 한번쯤 ‘이 물건을 내가 직접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곳에 주목하자.
홍익대 세종캠퍼스(조치원읍 세종로 2639)에 자리 잡은 홍익메이커랜드는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시제품 제작 지원 공간이다. 장비 교육부터 제품 제작, 창업 지원까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홍익메이커랜드를 소개한다.

홍익메이커랜드 공간 구성

상상랜드

아이디어 창작,
네트워킹

강의실

창업 교육

디자인실

아이디어 구체화,
설계 및 해성

시제작실

시제품 제작,
현장 교육

영상촬영실

제품 홍보,
클라우드 펀딩

창업

예비·초기 창업자
지원

홍익메이커랜드 이용방법

교육 신청

(누리집)

교육 이수 및 사용 자격 검증

장비 사용 신청

(누리집)

장비 사용 승인

(담당자 승인)

장비 이용





▲ 시제품제작실



▲ 패브릭실

이론부터 실습까지 무료 교육 운영

지난해 3월 문을 연 홍익메이커랜드는 지역 내 창업문화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교육은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 특히 제조, 창업에 필요한 장비를 46종 78대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전문 장비 교육을 매월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문 장비를 처음 접하는 이들을 위해 창업문화 확산 교육을 매월 1회 일일체험(원데이클래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전문 장비를 쉽게 이해하고 직접 제품까지 제작해 볼 수 있다.

창업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창업 역량 강화 교육도 운영된다. 창업 역량 강화 교육은 분기별로 개설되는데, 제품 영상·사진 촬영, 크라우드 펀딩, 판로지원 등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수강을 원하는 시민은 홍익메이커랜드 누리집(himakerland.com)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예비 창업자·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홍익메이커랜드는 전문성과 장비를 갖춘 시제품 제작 지원 공간인 만큼 예비·초기 창업자와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창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은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기술, 재료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교육, 기술, 재료비 등의 지원과 함께 다른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보고 싶지만 장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을 위해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각각의 보유 장비별로 전문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이들의 도움을 받아 아이디어를 실물로 구현해볼 수 있다. 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 신사업 또는 신제품 개발을 할 때에도 시제품 제작부터 초도 양산 물량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조 어시스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력단절 여성, 청소년 등 누구나 환영

홍익메이커랜드는 보다 많은 세종시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1억 원을 신규 투자해 중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패브릭, 가죽공예 장비 등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보유 장비를 활용하여 3D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시험장을 유치, 세종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가지 않아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4세 이상 청소년들은 보호자 동반 없이도 이용이 가능해 진로 탐색을 위한 방문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홍익메이커랜드의 설명이다.

홍익메이커랜드 관계자는 “보유 장비를 활용해 작은 액세서리부터 의류, 패브릭 소품, 무드등 등 다양한 제품을 비전문가도 쉽게 만들어볼 수 있다”며 “우수한 제품은 창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을 제공하니 창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홍익메이커랜드를 방문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소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로 2639,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문정도서관 지하 1층, 4층 홍익메이커랜드

이용시간 (월-금) 10:00~21:00 ※ 예약 시 토요일 이용 가능

문의 044-860-2411~2416

누리집 himakerland.com

봄의 나른함을 건강하게 이겨내는 '봄나물'

짙은 한파특보와 함께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찾아 온 봄. 봄이 되면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각종 영양분도 많이 필요하게 된다. 봄은 겨울에 비해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 각종 영양소의 필요량이 증가하고, 특히 비타민 소모량은 겨울보다 3~10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춘곤증(계절성 피로감)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나른함을 이겨내고 활기를 되찾는 방법의 하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봄나물을 섭취하는 것이다.

세종시에는 돌미나리, 취나물, 참나물 등의 봄나물을 비롯해 임금수라상에 올랐다는 세종시만의 특화 나물인 어수리 등 다양한 나물이 생산된다. 세종시 나물들은 싱싱장터와 공공급식센터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데, 이 나물들은 주로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하는 '약용작물연구회' 회원들이 재배해 공급하고 있다. 싱싱장터에서는 '미니키친'을 통해 우리 시 나물을 활용해 만든 다양한 반찬도 판매하고 있다.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세종시의 봄나물로 봄철 부족한 영양도 보충하고, 춘곤증도 함께 날려 보내는 것은 어떨까?



• 싱싱장터 3호점(새롬점) 개장 •

싱싱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며 세종시민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싱싱장터가 지난 1월 31일, 3호점(새롬점)을 개장했다. 3호점은 1층 로컬푸드 직매장, 2층 가공소와 즉석식품 판매소, 3층 어린이 도서관(싱싱 도서관)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3호점은 지역의 다양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농가 400여 명을 모집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싱싱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입점 농가 교육, 찾아가는 직매장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 20

☎ 044-860-8530



• 어머니의 손맛, 싱싱장터 미니키친 •

'싱싱장터 미니키친'은 세종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즉석반찬류를 판매하는 코너로, 현재 싱싱장터 1호점(도담점)에서 운영 중이다. 판매되는 반찬들은 세종로컬푸드 식재료를 80% 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요일별로 매번 다른 요리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하고 신선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싱싱장터 미니키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QR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봄나물밀쌈 만들기

봄나물로 만드는 봄나물밀쌈은 주로 반찬으로만 섭취하던 봄나물을 갖은 양념으로 무쳐서 밀쌈(밀전병)에 싸서 먹는 요리다. 향긋한 봄나물과 함께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느끼기 좋다.

④ 만드는 과정



❶ 나물은 억센 부분을 떼어내고 다듬어서 찬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둔다.



❷ 끓는 물에 소금 약간을 넣고 씻은 나물을 각각 살짝 데쳐 찬물에 행군 후 물기를 뺀다.



❸ 부추에 물을 넣어 믹서에 갈아 넣고 밀가루, 녹말가루, 소금을 넣고 잘 섞은 후 체에 걸러 밀전병 반죽을 만든다.



❹ 분량의 재료를 섞어 초고추장양념장, 된장양념장, 간장양념장을 각각 만든다.



❺ 데친 나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❻ 데친 나물을 각각의 양념장으로 무친다. 미나리(초고추장양념장), 유채나물(된장양념장), 취나물(간장양념장)



❼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밀전병을 직경 6~7cm 크기로 얇게 부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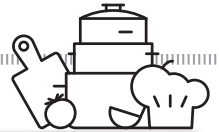


❽ 접시에 나물과 밀전병 부친 것을 담아 밀전병에 나물을 싸서 먹는다.



도움 김찬화 강사

- 외식경영학 석사
- 현 상심문화관 강사
- 전 우송대학교 조리과 겸임교수
- 전 우송정보대학 외식 조리과 외래교수



④ 재료

봄나물

돌미나리 200g, 유채나물 200g, 취나물 200g, 참나물 150g

밀전병

밀가루 1컵, 녹말 2큰술, 부추같은물 1.3컵, 소금 1/2작은술,

초고추장 양념

고추장 1큰술, 설탕 1/2큰술, 식초 1/2큰술, 다진마늘 1작은술, 통깨 1작은술, 참기름 약간

된장 양념

된장 1큰술, 다진파 1작은술, 다진마늘 1/2작은술, 설탕 1/3작은술, 들기름 1큰술, 거피들깨가루 1/2큰술

간장 양념

국간장 1큰술, 다진파 1큰술, 다진마늘 1/2작은술, 참기름 1/2큰술, 깨소금 약간

요리 TIP.

① 양념 제조 Tip

- 나물은 취향에 따라 양념을 바꿔서 할 수 있다.
- 고추장, 된장, 간장은 시판용과 집에서 담근 장이 염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약간 가감한다.
- 양념장을 한꺼번에 넣지 않고 간을 보아가며 나누어 넣고 무친다. 약간 모자란 간은 소금을 첨가해도 좋다.
- 매실액이나 고춧가루, 참치액 등 양념장 재료에 섞어 사용해도 좋다.

*위 양념장은 시판용 기준임

② 나물 & 밀전병 손질 Tip

- 나물의 억센 부분과 크기에 따라 데치는 정도를 달리한다. 돌미나리는 끓는 물에 넣고 색이 파랗게 변하면 꺼내도 된다. 나물의 크기, 두께, 억센 정도에 따라 데치는 시간을 가감한다.
- 부추는 믹서기에 물과 함께 넣은 뒤 곱게 갈아서 체에 내려 사용하면 좋다.
- 밀전병 반죽은 모두 섞어 체에 거른 후 1시간 정도 냉장 보관했다가 부치면 기포없이 매끈하게 잘 부쳐진다.
- 또한 밀전병을 부칠 때 팬에 기름칠을 하고 닦아서 부쳐야 기포없이 매끈하게 부쳐진다.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내일을 준비하는 기업

리봄화장품(주)

지난해 12월, '제5회 세종시 기업인의 날'에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리봄화장품은 화장품 연구개발과 생산,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강소기업이다. 세종시를 기반으로 전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리봄화장품만의 특징과 비전은 무엇인지, 서종우 대표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〇〇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 화장품 산업의 흐름과 K뷰티의 위상에 비춰봤을 때, 화장품 제조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철학을 토대로 정말 괜찮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〇〇



▲ 리봄화장품(주) 서종우 대표

고객의 필요에 맞춘 화장품과 함께 세계로

2010년에 창업한 리봄화장품은 고객이 요구하는 화장품을 개발해 납품하는 '생산자개발방식'(ODM)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이다. 국내를 포함해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전 세계 26개국에 100여 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약 70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리봄화장품은 제약회사 15년, 화장품회사 15년 등 도합 30년 동안 생산 품질 관리에 힘쓴 서종우 대표의 품질 노하우가 온전히 녹아든 기업이다. 창업 당시부터 수년간 연구 개발에 매진한 전문가들과 함께 현대화된 생산 시설에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리봄화장품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고객의 상황을 고려해서 제작된 철저한 맞춤 제품이다. 동남아시아에 판매되는 화장품은 각 국가 인종들의 피부 타입과 그들의 문화에 어울리는 형태로 개발되며, 가격 역시 각 나라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책정된다. 여기에 주요 고객의 연령대를 분석, 이미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고가의 화장품 시장보다는 합리적인 소비를 선호하는 젊은 층을 타깃으로 온라인 시장을 구축해 왔다.

국내 화장품 제조사에게는 생소하지만 향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무슬림, 비건(vegan) 영역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무슬림 국가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할랄(HALAL) 인증 화장품을 만들기 위한 여건을 조성 중이며, 동물 유래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인증인 비건 인증도 획득한 바 있다. 화장품 가운데 의약품으로 인정되는 자외선차단 제품과 유사한 일반의약품을 미국에서 자유롭게 판매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의약외품(OTC) 등록에도 투자를 계속하며 앞날을 대비하고 있다.



▲ 리봄화장품은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고객 니즈에 맞춘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33

제가 만들고 싶은 회사는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연 몇 % 성장, 연 매출 몇 억 달성. 이런 수치들은 모두 부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

세종시 지원을 양분으로 성장하는 리봄화장품

리봄화장품은 공장을 비롯한 모든 부대시설이 세종시에 위치해 있다. 전 세계를 타깃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리봄화장품이 세종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창업자인 서종우 대표의 고향이 세종시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세종시의 지리적, 경제적 위치가 리봄화장품에게 또 다른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객관적인 분석이 있었기에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

서종우 대표는 충청도 인근의 도시들 가운데, 외국 바이어들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도시가 바로 행정수도인 세종시라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이나 서울, 부산, 목포 등 전국 어디에서 출발해도 교통이 편리한 것이 세종시의 강점이다. 여기에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까지. 그는 리봄화장품이라는 씨앗이 커다란 나무가 되기까지, 세종시의 수많은 지원이 최적의 양분이 되었다고 회고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지원은 공장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은 일이었다. 창업 이후 6년간 임대 공장에서 사업을 하며 연간 임대료만 2~3억 원을 부담했는데, 세종시의 배려로 공장 부지를 낮은 금리로 지원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됐다. 마침 기업 확장을 꾀하던 시기라 리봄화장품은 세종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리봄화장품은 관리직의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를 정도로 젊은 기업이다. 지금도 여력이 되는대로 지역의 젊고 참신한 인재들을 채용하고 있다. 지역친화적인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세종시의 특산물인 무궁화를 활용해 세종시를 상징하는 화장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또한 연간 3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농축산물 박스를 구입해 직원에게 나눠주는 이벤트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언제나 내일을 바라보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리봄화장품. 작지만 강한 리봄화장품의 고속성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된다.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정부세종청사

시티텔러가 전하는 특별한 세종 이야기 #1. 정부세종청사

우리는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하곤 한다. 잘 모를 때는 무심코 지나치던 대상이, 제대로 알고 보면 달리 보인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세종시에 대해 알면 알수록 매일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삶의 공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세종시 구석구석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시티텔러와 함께 우리 시의 특별한 명소와 건축물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 정부세종청사 전경(출처: 행복도시 영상기록실)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세종시의 랜드마크

세종시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장소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까? 여러 장소가 언급되겠지만, 현재의 행복도시 세종을 탄생하게 만든 이곳. 총길이가 3.6km에 달하는, 15개의 건물이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고 세상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을 품고 있는 정부세종청사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정부세종청사는 지난 2006년, 국제공모를 통해 확정된 당선작을 토대로 설계되었으며, 수직 도시가 아닌 플랫 시티(Flat City, 수평적 도시), 도시시설 간 연계성을 강조하는 링크 시티(Link City, 연결된 도시), 자연 바람, 열섬효과 저감 등 환경친화적 도시인 제로 시티(Zero City, 친환경 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그 규모가 거대한 만큼 정부세종청사 건립은 6년 동안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08년 1단계 공사를 시작으로 2014년 10월 까지 3단계 공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완성된 청사의 전체 연면적은 약 63만㎡(약 19만 평)로 2012년 9월 정부기관 첫 입주 시작으로 현재 2만여 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전통성벽(수원성벽)에 조선시대 *순성놀이 의미를 적용하였고, 2단계는 처마와 누각 등 한국 전통 건축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도입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발'과 '비단의 곡선흐름'을 건물 외벽에 적용했다.

*순성놀이

성곽둘레를 돌며 성 안팎의 경치를 구경하는 놀이

건물은 고밀도 수직형 구조에서 벗어나 수평으로 펼쳐진 구조로, 지형과 자연환경을 살려 평평한 캔버스형 청사로 구성되어 있다. 하늘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는 자연과 건물의 구분 없이 타운 전체가 마치 대규모 공원처럼 보인다. 현재는 용의 형상을 닮아 금방이라도 하늘을 날아 오를듯한 모습이지만, 최초 설계의 의도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적용한 알파벳 U자 형태였다고 한다.

국민 누구에게나 열린 소통 공간

정부세종청사가 있던 자리는 원래 민마루라고 불리던 곳으로, 마을의 언덕이 높지 않고 밋밋하기 때문에 '민마루'로 불렸다는 설도 있고, 백성 民(민)과 마루가 합쳐져 서민이 사는 동네라는 뜻도 있다. 서민이 살던 동네 위에 세워진 정부세종청사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모습과 잘 맞아 떨어지는 듯하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은 2016년 5월 '세상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전체 면적이 7만 9,194㎡에 달하며 축구장 11개를 합친 것과 같은 넓은 면적을 가진 옥상정원에는 200여 종 120만 그루의 수목과 화훼류가 심겨져 있다.

옥상정원은 옥상카페, 파고라, 미술작품, 디자인 의자 등도 마련되어 있어 청사의 녹색 지붕 역할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책길이자 국민과 정부 사이의 소통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현재는 보안 및 안전 문제로 1.2km 정도만 관람할 수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3.6km 전 구간이 개방되어 국민 누구나 거닐 수 있는 날이 실현되기를 고대해 본다.

최근 정부세종청사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부족한 청사의 업무 공간 해결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들어선 것이다. 중앙동은 얼굴인증으로 내부 시설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보안 로봇이 순찰 업무를 맡는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새롭게 지어진 중앙동은 2월 15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올 6월까지 단계적으로 입주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이루어지면 행정수도를 향한 세종시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가오는 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푸르른 나무와 다양한 꽃들이 반겨줄 정부세종청사의 옥상정원을 마음껏 걸어보면서 봄의 활력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도음 박민길 시티텔러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관람

옥상정원 관람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관람 소요 시간은 40~50분이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 신분증 필수 지참

운영시간

평일: 5회 운영
(10시, 11시, 14시, 15시, 16시)
주말: 4회 운영
(10시, 11시, 14시, 15시)

※ 미운영 시기: 휴서기(7~8월), 휴한기(1~2월)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수영장과 헬스장, 실내풋살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춘 체육관은 정부청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

월~금(06:00~22:00)
주말, 공휴일(09:00~18:00)
※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
(www.sjcs-sporex.co.kr) 참고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세종시 유일의 대규모 전시 및 회의시설을 갖춘 곳으로, 국제회의장을 포함한 연회장, 각종 전시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획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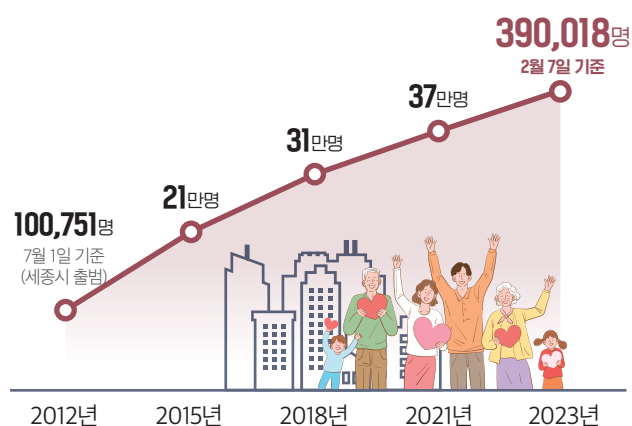
대관 안내 및 이용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누리집
(gbmo.go.kr/scc/main.do) 참고

세종소식

세종인구 39만 돌파, 미래전략수도 도움닫기

내년 3~4월 40만 돌파 전망



세종시 인구가 지난달 39만 명을 돌파하면서 미래전략수도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포함한 세종시의 총 인구는 39만 18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지난 2012년 7월 1일 시 출범 당시 10만 751명으로 출발한 세종시 인구는 10년 7개월 만에 39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시 출범 이후 매월 평균 2,200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3,485호, 내년에는 3,616호의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되어있어, 당분간 인구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추세대로라면, 오는 2024년 3~4월경에는 인구 4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민호 시장은 “새롭게 시민이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세종시가 하루빨리 미래전략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대폭 축소

군사기지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주민숙원 해소 전망

세종시 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되면서 반세기 넘게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지난달 13일 연서면 월하리에 위치한 조치원비행장을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방부에서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조치원비행장은 1970년 설치된 이후 50년 넘게 고정익 항공기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작전기지 주변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약16.2㎢(490만 평)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때문에 해당 구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등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겪으면서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이번 기지종류 변경으로 조치원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50여 년간 이어져 온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변경 절차에 적극 협조해 빠른 시일 내 인근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해 비행장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최민호 시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세종시 북부권 발전을 위한 큰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세종시 성장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민과 손잡고 미래전략수도 속도 높인다

제3기 시민주권회의 출범



세종시가 시민들과 함께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시정 4기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제3기 시민주권회의'를 출범했다.

시는 지난달 14일 시청 여민실에서 시민위원, 전문가, 시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시민주권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6일까지 10개 분과별 시민위원 공개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214명이 몰리며 평균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민위원은 무작위 추첨으로 분과별 7~8명씩 총 72명이 선정·위촉됐으며 이후 각 부서에서 추천한 전문가 58명이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렇게 위촉된 3기 위원 130명은 시의원·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 20명과 함께 오는 2025년 1월까지 기획조정·시민안전·자치행정·문화체육 등 10개 분과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은 위원 위촉장 수여, 시정 운영방향 및 업무계획 설명 등 1부와 분과 임원진 선출, 시민주권회의 소개 등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최민호 시장은 출범식에 참석해 시민위원 분과별 대표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정 4기 세종시 비전과 올해 중점 추진 사업을 설명했다.

최 시장은 "시민주권회의는 시민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시정 자문기구로, 시민과 정책 담당자를 연결하는 교두보"라며 "미래를 꿈꾸고 설계하는 시민주권회의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에 세종시 알릴 '세종프렌즈' 위촉

14개국 외국인 15명 구성, 관광명소 등 홍보



지구촌 14개국 출신의 외국인들이 뭉쳐 세종시를 전 세계에 알린다. 세종시는 지난달 16일 제2기 글로벌 홍보단 세종프렌즈(Sejong Friends) 15명을 위촉했다.

세종프렌즈는 국내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 중 세종시에 관심이 많고 소셜미디어 활동이 활발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했다. 필리핀과 인도, 가나, 요르단, 캐나다 등 세계 14개국 출신 15명의 외국인이 올해 1년 동안 외국인 홍보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매달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광명소 체험 후기, 공공시설 이용후기, 도시생 활상 등 각자 개성을 살린 다양한 콘텐츠로 세종시 홍보에 나선다.

이에 발맞춰 세종시도 세종프렌즈와 함께 할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이다. 세종시 곳곳에 숨겨진 매력적인 장소를 외국인의 시각에서 소개할 수 있도록 홍보여행(팸투어)을 계획 중이며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축제에도 초청할 계획이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최민호 세종시장과 세종프렌즈가 서로의 채널을 구독하는 '구독 퍼포먼스'에 이어 세종시 직원으로 구성된 '외국어지원단'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니 토크쇼'가 열리기도 했다.

세종시는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통해 많은 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창의적인 홍보콘텐츠들이 국제도시로서 세종시의 위상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소식

튀르키예 지진피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돕는다 세종시, 직원 참여로 모인 성금 1,525만원 전달



세종시를 비롯한 지역 금융계, 직능단체 등이 강진피해를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 성금과 구호물품을 기부하며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세종시는 지난달 21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1,525만 5,000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시 소속 공직자들이 지난달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간 자발적으로 성금모금을 진행해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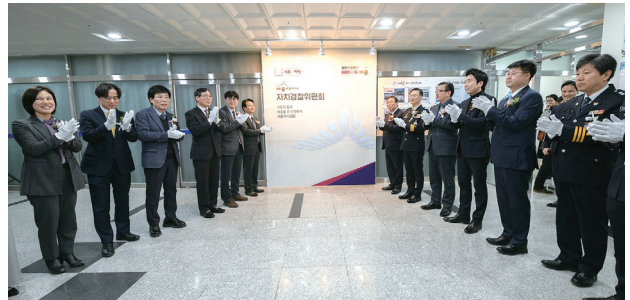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큰 지진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뜻을 표한다”라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간절한 기원을 담아 세종시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세종우리신협은 구호성금으로 300만 원을, 세종시 자율방재단연합회는 592만 5,000원을 쾌척했다. 성금 전액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지역 현장복구와 피난처 내 이재민들의 생필품, 구호품 지원에 쓰인다.

시는 직원 성금 모금 외에도 읍면동 직능단체,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구호물품기부를 알려 지난달 17일까지 물품을 수거하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전달했다.

한편,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지원성금 모금 관련사항은 대한적십자사 누리집(redcross.or.kr) 또는 전화(☎02-3705-374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세종자치경찰, 더 안전한 세종 ‘본격 가동’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출범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공식 출범하며 시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소담동 세종경찰청 건물 4층 위원회 사무실에서 녹색어머니회, 새마을회 등 시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국 출범식과 현판식을 진행했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2021년 7월 1일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사무국 설치 없이 세종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했다. 경찰법 제36조 세종시 특례에 따라 위원 전원이 비상임인 데다 사무기구 없이 세종경찰청에서 위원회 사무를 추진하면서 그 동안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후 사무국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난해 10월 사무국 설치 근거가 담긴 경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3팀 15명으로, 세종시와 경찰청, 교육청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인 지방공무원(정무직)으로, 그 외 위원 5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치안정책을 발굴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해 신뢰받는 자치경찰을 실현하는 한편,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승권 위원장은 “그동안 상임위원과 시 소속 사무국의 부재로 예산의 운용과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사무국이 신설되면서 지방·치안의 효율적인 연계로 시민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인’ 신의현, 2년 연속 4관왕 달성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서 금메달 획득



세종시 장애인체육회 소속 ‘철인’ 신의현 선수가 2년 연속 4관왕 달성에 성공했다.

세종시 선수단은 지난달 10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에서 열린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4개를 획득하며, 종합점수 2,778점으로 대회 종합순위 15위에 올랐다.

18명으로 구성된 세종시 선수단은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스키, 컬링 3종목에 출전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세종시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번 대회 4관왕에 도전했던 신의현 선수는 지난달 10일과 11일에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좌식 스프린트 4.5km와 미들(중거리) 7.5km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12일과 13일에는 세 번째 크로스컨트리스키 좌식 3km와 좌식 4.5km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며 2년 연속 4관왕을 달성했다.

세종시 체육회 관계자는 “세종시장장애인체육회에서 2연속 4관왕 달성의 위업을 보여준 신의현 선수가 진심으로 자랑스럽다”며 “대회기간 동안 최상의 실력으로 투혼을 발휘해준 세종시 선수단에 게 진심어린 축하와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삶을 채워갑니다”

제2회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명예학위 수여식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을 통해 앞으로 삶을 채워가는 시민들이 명예학위를 취득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달 8일 누리락에서 제2회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명예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집현전 명예학위란 세종시만의 독특한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누적된 이수 시간을 명예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위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만 1,089명의 시민학습자가 총 45,040시간을 이수했으며 이 중 학위취득 대상자 81명(부제학 9명, 전임학사 72명)이 이날 행사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똑똑시민연구 과정’을 필수 과정으로 이수한 부제학(명예석사) 학위 취득자 9명은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본보기가 되었다는 게 진흥원의 설명이다.

진흥원은 이와 함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준 세종농업기술센터 측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영송 원장은 “학습에 대한 열정으로 노력의 열매를 맺은 81명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올해도 우수한 강사진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세종시의 평생학습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회소식



세종시의회 제80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동의안 등 72개 안건 처리

세종시의회는 지난달 10일 3차 본회의에서 3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72개 안건을 의결하고 제8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광운·김재형·이현정·유인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김학서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어 위원 선임의 건까지 처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와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가 본격 운영된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을,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등 31건을 처리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등 19건을,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을 처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중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 제기에 따른 찬반 투표 결과 찬성 12표로 가결됐다.



3차 본회의 5분 발언



김광운 의원

“
공공급식과 지역
농업발전 선순환
구축해야
”

김광운 의원은 공공 급식 예산을 세종시 농업 발전과 도농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한 공공급식 방안으로는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학교 인센티브제 도입 및 지역 농산물 할당률 지정 등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한 보조금 교부 조건 명시 ▲지역 농산물 적정가 보장을 기반으로 급식재료 수급 안정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언급했다.



이현정 의원

“
로컬푸드 안전성
높이는 인증제
도입해야
”

이현정 의원은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체계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 및 전담팀 신설 등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인 GAP인증 수준 이상의 세종 로컬푸드 자체 인증제 도입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 전담팀 신설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고려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와 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김재형 의원

“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확대 등
적극 검토를
”

김재형 의원은 출산 장려를 위한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출산 가정에서 체감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지원 방안으로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및 이용료 지원 바우처 유효기간 확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실시 ▲장기적인 과제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제시했다.

긴급현안질문



유인호 의원

“
금강수변상가
활성화 대책
마련을
”

유인호 의원은 금강 수변상가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는 지역 상인을 포함한 시민협 의체와 논의를 계속해서 상가 허용 용도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변상가 주변에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등 숙박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

“
보편적 난방비
지원 확대해야
”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가 저소득층과 차상 위계층으로 한정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최근 파주시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화폐 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전달하며 “세종시는 모든 가구당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학서 의원

“
세종 미래학교
체계적·단계적
추진 촉구
”

김학서 의원은 혁신학교의 성과와 한계, 새롭게 시작하는 미래학교에 대한 긴급현안 질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과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혁신학교 일반화 차원의 미래학교 추진이 성급했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어 세종시 내 중·고교생 기초 학력 미달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와 함께 맞춤형 학습지원 등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의 조속한 구축, 미래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설 등을 주문했다.

의회소식

01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 규칙 조속 제정 촉구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퍼포먼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국회 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달 2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

4차 정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설치가 확정됐지만 상임위원회 수 등 이전 규모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이전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면 총사업비 산출이 어렵고 이를 토대로 재정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게 세종시의회회의의 설명이다.

국회 이전 결정을 촉구하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 전체 이전을 감안한 건립 규모를 확정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등의 이전 범위를 최대화하여 조속히 국회 규칙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세종시민들을 비롯한 충청권 지역민들은 2027년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세종 시대가 개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실천 방안 및 지방의회 조직 자율권 확보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 건의안 등 5개 안건을 처리했다.

02 2023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등 청취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특별위원회

세종시의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세종시 관계 공무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성진 세종시 미래전략본부장으로부터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및 2023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을 보고 받은 데 이어 지난해 실시한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점검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인수점검 특위 위원들은 지난해 11월 시민참여특별점검반과 합동 점검에서 제기된 ▲주차 유도등 설치 ▲조류 충돌 방지 필름 보강 ▲완강기 누락 ▲타일·천장·기둥 등 마감 불량 ▲화단 잔디식재

보강 등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꼼꼼히 확인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인수 예정 시설물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수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세종시는 올해 6·4생활권과 4·2생활권 등에 도로·공원·하천 등 공공시설물과 공공건축물 3개소(나성동복합커뮤니티센터,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119특수구조단)를 인수할 예정으로,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위는 이달 중 시민참여특별점검반과 함께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를 점검하는 등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03 튀르키예 지진 참사 '깊은 애도' 성명 발표

세종시의회, 피해 회복 위한 지원 의지 밝혀

세종시의회는 지난달 8일 성명서를 통해 “튀르키예 지진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의원 일동은 지난달 6일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발생한 진도 7.8의 대지진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대지진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상실한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가 현지로 출발했으며 서울과 경기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긴급구호자금 지원과 구호대 파견에 힘을 모았다”면서 “세종시의회 차원에서도 세종시의 긴급구호자금 전달 등 지진 피해 회복과 재건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거 한국전쟁에 참전한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국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며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오랜 시간 지속돼온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간 국가 관계를 고려해 구호물자 및 재건 장비 지원 등에 필요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회 심의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달 8일 ‘2023년도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 등 10개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수정 가결하고 ‘세종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일 조례안 29건 및 동의안 3건 등 총 32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세종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을 원안 가결하고,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달 3일 ‘세종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19건 중 17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수정 가결, 1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의결했다. 특히 위원회 제안으로 급격한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한 시민 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를 속도감 있게 개정했다.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일부터 3일까지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13건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세종시교육청 교육 발전을 위한 관학 협력 및 지원 조례’ 등 13건을 원안 가결했다.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행사 시 안전 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나눔으로 이어가는 세종시 백년가게, 은용골농장가든 이야기

세종시에서 맛집을 언급할 때면 늘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곳이 있다. 바로 장군면에 위치한 은용골농장가든이다. '농장가든'이란 상호답게 구불구불 이어진 산길에 위치한 은용골농장가든은 참숯 오리 훈제와 단호박 찰밥, 돼지 석갈비 등을 주메뉴로 판매하고 있다. 은용골농장가든 김재희 대표는 IMF가 한창이던 1998년 결혼과 함께 이곳에 자리 잡고 장사를 시작했다.

음식이 맛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리라는 믿음과 달리, 창업 이후 몇 년간은 장사가 순탄치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위치 자체가 대로변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있었고, 아무리 맛있는 곳이라도 입소문이 하루아침에 날 리가 없었다.

하지만 김재희 대표는 그 믿음을 쉽게 놓아버리지 않았다. 식당을 찾는 손님 한분 한분에게 늘 최선을 다해 대접했고, 인근 텃밭에 직접 농사를 지어 만든 식재료로 모든 반찬을 만들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해야 하는 고된 일이었지만, 그런 김 대표의 장인 정신과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 점차 빛을 보기 시작했다. 주변의 관공서나 기업을 중심으로 은용골농장가든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음식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 김 대표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눔을 베풀기 시작했다. 매년 10월이 되면, 장군면의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경로잔치를 열었다. 어르신 500~600여 명에게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은용골농장가든

의 음식을 대접하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코로나19 이전까지 10년 넘도록 함께 활동하는 봉사단체 회원들과 함께 활동을 이어갔고, 코로나19 이후에는 도시락 형태로 취약계층에 나눔을 지속하고 있다. 은용골농장가든이 장군면의 '착한가게' 2호점으로도 이름을 올린 이유다.

꾸준히 나눔을 베풀며 장사를 시작한 지 어느덧 25년. 남편과 함께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김 대표에게 최근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 외식조리학과를 나온 아들이 주방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김 대표의 오랜 노하우와 비법을 전수받은 아들이 주방을 지키며 그녀를 돕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수줍은 미소와 함께 앞으로도 남편, 아들과 함께 변함없이 이곳을 지키며 나눔을 베풀겠다고 말하는 김재희 대표. 따뜻한 봄날에 어울리는 그녀의 마음처럼, 은용골농장가든이 오래도록 세종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점으로 남기를 함께 바라본다.

은용골농장가든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은용2길 71

전화번호: 044-858-5292

*요리 특성상 사전 예약 필수



백년가게란!

오랜 기간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고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점포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아 공식 인증받은 점포



국립세종수목원이 소개하는 이달의 반려식물



몬스테라
(*Monstera deliciosa* Liebm.)

천남성과
(Araceae)

키우기 난이도



반려식물 '몬스테라' 관리법



반음지에서 잘 자라요

그늘이 있는 베란다,
창가를 추천해요.
※ 통풍이 잘되어야 해요!



겨울에는 집안에서 키워주세요

18~30℃ 온도가
좋으며 최저 14℃ 이상
유지해주세요.



물은 이렇게 주세요

습도는 60~80%,
최소 50% 유지해 주세요.
※ 건조한 겨울에는
공중습도를 조절하면
좋아요!



병해충을 주의해주세요

병해충에 강한 편이에요.
BUT!! 극심하게 건조하면
진딧물, 깍지벌레가
생겨요!



삼목을 추천합니다

뿌리가 자란 마디의
줄기를 잘라 삼목하세요.
※ 배수가 잘 되는 토양
(필라이트/버미큘라이트)에
심어요.



몬스테라 앞의 구멍은
자생지인 열대우림의
환경에서
적은 양의 빛을
아래 잎까지
전달하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전시원실 3월 행사

동백꽃 필 무렵

2023년 2월 10일~3월 26일

개화 및 낙화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열대우림, 난을 풀다

2023년 1월 21일~3월 26일

개화 및 낙화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동양란 화예품 전시회

2023년 3월 18일~3월 19일

동양란 300점 심사 및 전시

3월 교육프로그램 안내



수목원 다반사

전연령 대상으로 사계절전시온실에서 만나는 반려식물 이야기

대상: 전연령 / 운영시간: 100분 / 교육비: 기본교육비



모두 家 행복스

가족이 함께 즐기는 유익한 곤충 체험 프로그램

대상: 유초등 가족 / 운영시간: 120분 / 교육비: 기본교육비+재료비



고마 씨앗의 여행

다양한 씨앗의 번식 방법을 알아보고 직접 씨앗을 심어보는 가족 프로그램

대상: 유초등 가족 / 운영시간: 50분 / 교육비: 무료



거북이투어

보행약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기트램을 활용한 슬로우해설

대상: 보행약자 장애인 등 / 운영시간: 30분 / 교육비: 무료

기본교육비 안내 (재료비 별도)

구분	개인	단체 (20인 이상)
어른(20세 이상)	8,000원	7,000원
고등(17~19세)	7,000원	6,000원
중등(14~16세)	6,000원	5,000원
초등(8~13세)	5,000원	4,000원
유아(5~7세)	3,000원	2,000원

국립세종수목원 교육문의
☎ 044-251-0002

*프로그램별 세부내용 및 일정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 교육프로그램
예약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마당

2023.1.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기간** 2023. 3. 21.(화) ~ 4. 10.(월) (20일간)
- 제출사항** 표준주택선정*이 적절하지 않거나,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의견 가격 제시 (*용도지역 및 주택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지나치게 상이한 경우)
- 제출방법**
- 시청 세정과·주민센터: 방문제출/우편
팩스 ☎ 044-300-3539
 - 온라인: 세종시 누리집(www.sejong.go.kr),
일사편리(http://kras.sejong.go.kr/444)
- ※ 의견서 다운로드: 시 누리집>공지사항>“2023.1.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방법 안내”
- 문의** 시 세정과 ☎ 044-300-3532



2023.1.1.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기간** 2023. 3. 17.(금) ~ 4. 5.(수) (20일간)
- 열람방법**
-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모바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app)
 - 전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1644-2828),
한국부동산원 대전지사(☎ 042-254-1174)
- 제출방법**
- 우편: 한국부동산원 대전지사(대전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 둔산회관 18층)
 - 팩스: ☎ 042-254-7121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제출 가능(접수 즉시 부동산원으로 팩스 송부)
- ※ 의견서 다운로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견제출바로가기>(하단)의견서서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 신청대상**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세종시 일반음식점
- 지원내용** 입식테이블 교체 비용 50% 지원(업소별 최대 100만원 지원)
- 대상선정** 신청대상 중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접수기간** ~ 2023. 3. 17.(금)
-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문의** 시 보건정책과 ☎ 044-300-5734



국립세종수목원 전기버스 운행 재개

- 재개일시** 2023. 2. 20.(월)부터
- 이용대상** 보행약자(만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및 동반보호자 1인
- 운영시간** 화~금 10:00~16:00(매시 정각, 일 7회 운영)
※ 주말, 공휴일 미운영
- 문의** 국립세종수목원 고객센터실 ☎ 044-251-0001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상반기 학습자 추가 모집

- 신청기간** 2023. 2. 25.(금) ~ 3. 10.(금)
- 신청대상** 세종시민 누구나
- 모집정원** 강좌별 10~20명
- 교육분야** 정책, 시민, 인문, 문화예술, 실용, 미래교육
- 신청방법**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누리집(sjllms.sjhle.or.kr) → 수강신청
- 문의**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개발팀
☎ 044-865-9677~9679

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 신청대상** 2020. 4. 1. 이전에 설치된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려)는 시민
- 신청기간** 2023. 2. 13.(월) ~ 12. 8.(금)
※ 예산 소진 시 사업마감
- 지원대수** 일반가구 400대, 저소득층 10대
※ 신청 순 지원
- 지원금액** 일반가구 10만 원/대, 저소득층 60만 원/대
- 대상보일러**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LNG만 해당)
※ 연간 가스비 최대 43만원 절감 효과(보일러 평균 설치 비용 약 90만원)
- 신청방법**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
(www.greenproduct.go.kr/boiler) 신청
※ 우편접수 : (30150) 세종시 호려울로 19, 스마트허브 3, 6층
환경정책과 저녹스보일러 담당자 앞
- 문의** 시 환경정책과 ☎ 044-300-4235

「수어통역사 양성과정」 학습자 모집

- 신청기간** 2023. 2. 24.(금) ~ 3. 7.(화)
- 신청대상** 세종시민 누구나*
(* 전 단계 과정 이수자(진흥원 개설과정 수료자) 및 동등 수준의 교육 이수자 우선 선발)
- 모집정원** 20명
- 수강료** 무료
- | | |
|-------------|---|
| 강좌명 | 수어통역사 양성과정 3~4단계 |
| 교육일정 | 3. 14.(화) ~ 6. 13.(화) 매주 화, 목
19:00~21:00(단계별 15차시 30시간) |
| 장소 | 정부세종청사문화관 2층 융합3실 |
- 신청방법** 신청서 이메일 신청 / 진흥원 누리집(sjhle.or.kr)
공고 예정* (* 세종시수어통역센터 연계)
- 문의**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팀
☎ 044-865-9653

2023년 상반기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 신청기간** 2023. 2. 20.(월) ~ 3. 8.(금) 9:00~18:00
- 운영기간** 2023. 4. 10.(월) ~ 8. 25.(금)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신청대상** 영유아(어린이집·유치원 등),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통장협의회, 전통시장 상인회 등 일반시민 및 기관·단체
- 교육방법** 교육신청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교육
- 교육분야** 생애주기별 6대 안전분야
- 신청방법** 전자우편(e-mail) 접수(songih@korea.kr)
- 문의** 시 안전정책과 ☎ 044-300-3622~3624

2023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 신청기간** 2023. 3. 3.(금) ~ 4. 14.(금) 18:00까지
- 선발분야** 8개 분야, 441명 선발, 3억 4600만원 지원

핵심인재육성 장학지원	• 특기적성 장학금 • 우수인재 장학금	130명 선발
디딤돌 장학지원	• 모범 장학금 • 공익발전기여 장학금 • 학자금 원금상환 지원	268명 선발
무지개 장학지원	• 장애인 면학 장학금 • 장애인 특기적성 장학금 •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장학금	43명 선발

- 문의**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개발팀
☎ 044-865-9685



2023년 3월 공연 & 전시 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계속 행사 교육 세종어린이아카데미(클래식, 미술, 문학) / 3.7. ~ 6.1. / 박연문화관 전시 이영우 교수 단체전 / 3.1. ~ 3.26. / 비오케이아트센터 전시 재즈 전시회&도슨트 <재즈한 날> / 3.18. ~ 4.9. 토, 일 14:00, 17:00 / 재즈인랩 전시 청년작가 그룹전 / 3.28. ~ 4.8. / 비오케이아트센터						
1			1 삼일절	2	3	4
				공연 정명훈&드레스덴 슈타츠헤펠레 with 조성진 19:30 세종예술의전당		
5	6 경칩 음 2.15	7	8	9	10	11
				공연 어린이뮤지컬 <목 짧은 기린 지피> 19:00 세종문화예술회관	공연 어린이뮤지컬 <목 짧은 기린 지피> 11:00, 14:00, 16:30 세종문화예술회관 공연 국립국악원 중요재례악 17:00 세종예술의전당	
12	13	14	15	16	17	18
				공연 박지현 피아노 독주회 19:30 세종예술의전당	공연 뉴 콰르텟 - 세종 19:30 세종예술의전당	
19	20	21 춘분	22 윤 2.1	23	24	25
공연 2023스타인웨이 위너콘서트 인코리아 17:00 세종예술의전당					공연 김응수&카메라타 솔 19:30 세종예술의전당	공연 가족뮤지컬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11:00, 14:00, 16:00 세종문화예술회관
26	27	28	29	30	31	
			공연 3월 문화산책 <재즈로 듣는 세계여행> 19:30 비오케이아트센터	공연 양방언 콘서트 <패션애틀러> 19:30 세종예술의전당		

※공연 및 전시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세종예술의전당, 세종문화예술회관 www.sjac.or.kr | 세종문화원 www.sejongcult.or.kr | 세종음악창작소 www.nurirock.or.kr

이달의 추천 예술

[세종예술의전당 개관 1주년 기념공연 개최]

세종예술의전당이 개관 1주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더욱 특별한 공연을 선물한다. 지난해 3월 30일 개관 이후 세종시를 대표하는 문화명소로 자리 잡은 세종예술의전당은 거장들과 함께하는 기념공연을 통해 개관 1주년의 의미를 되새긴다.

첫 번째 공연은 <정명훈 & 드레스덴 슈타츠헤펠레 with 조성진>으로 3월 2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된다. 마에스트로 정명훈의 지휘로, 창단 475주년을 맞은 독일의 대표 오케스트라인 드레스덴 슈타츠헤펠레와 피아니스트 스타 조성진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기념비적인 공연이 될 예정이다. 차이콥스키, 슈베르트, 베버의 곡으로 개관 1주년 기념공연의 포문을 연다.

3월 11일 오후 5시에는 국립국악원의 <종묘제례악>이 1주년 기념공연으로 찾아온다. 세종대왕이 직접 작곡한 음악이자 조선 의례의 정

점에 위치한 <종묘제례악>을 무대화한 이번 공연은 조선 왕실의 음악과 정신문화를 경험해보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3월 30일 오후 7시 30분에는 개관 1주년 특별공연으로 양방언 콘서트<PASSION & FUTURE>가 무대에 오른다. 음악가이자 작곡가, 프로듀서, 피아니스트까지 동서양을 아우르는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을 펼치는 양방언은 한국의 동양적 정서를 서양음악과 융화시킨 악곡으로 주목받으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별히 이번 공연에서는 세종시를 테마로 한 창작곡 발표를 예고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편 세종예술의전당은 올해 개관 2년 차를 맞아 더욱 다채로운 기획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안내 및 예매는 세종예술의전당 누리집(www.sjac.or.kr)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공연] 정명훈 &
드레스덴 슈타츠헤펠레 with 조성진**

- 일시 : 3. 2. (목) 19:30
- 장소 : 세종예술의전당(국립박물관로 21)
- 문의 : 044-850-8921~4
- 관람 : 정가 V석 32만원, R석 24만원,
S석 15만원, A석 9만원



**[공연]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

- 일시 : 3. 11. (토) 17:00
- 장소 : 세종예술의전당(국립박물관로 21)
- 문의 : 044-850-8921~4
- 관람 : 정가 R석 3만원, S석 2만원



**[공연] 양방언 콘서트
<PASSION & FUTURE>**

- 일시 : 3. 30. (목) 19:30
- 장소 : 세종예술의전당(국립박물관로 21)
- 문의 : 044-850-8921~4
- 관람 : 정가 R석 4만원, S석 3만원

[어린이 뮤지컬] 목짧은 기린 지피

개학 시즌을 맞아해 자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뮤지컬이 찾아온다. <목 짧은 기린 지피>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고정욱의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어린이 창작뮤지컬로, 목이 짧아 놀림을 받던 새끼 기린 '지피'가 위험에 처한 초원을 구하는 이야기이다. 다양한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완성도 높은 공연이 특별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 일시 : 3. 10. (금) 19:00
3. 11. (토) 11:00, 14:00, 16:30
- 장소 : 세종문화예술회관
(조치원읍 문예회관길 22)
- 문의 : 070-8728-1215
- 관람 : 정가 R석 4만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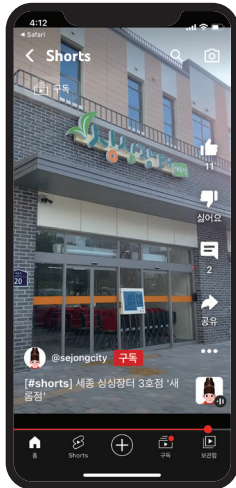


#1

#shorts

심상장터 3호점 '새롭점' 오픈!

#심상장터 #3호점 #새롭점 #오픈



세종 로컬푸드 직매장 심상장터 3호점(새롭점)이 1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나고 자란 신선한 농산물을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세 번째 심상장터 새롭점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영상으로 함께 둘러보시죠~

#2

#shorts

국립세종수목원 '나의 초록 우주' 특별 전시

#국립세종수목원 #공기정화식물 #초록우주



국립세종수목원 특별전시온실에서 오는 3월 26일까지 '나의 초록 우주' 전시가 펼쳐집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특별전시온실에서 상상 속 초록의 우주를 경험해보세요!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수목원로 136(국립세종수목원)

관람시간: 화~일 09:00 - 17:00

*매주 월요일 휴관(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개관 후 다음날 휴관)

이달의
세무
상식

지방세 고지서, 종이 대신 스마트폰으로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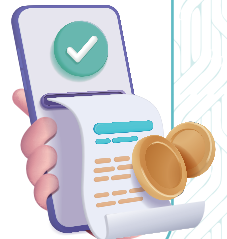
편리함! 카카오페이나 금융사 앱을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알뜰함! 전자송달·자동이체 동시 신청시 고지서 1장당 1,600원 공제로 할인폭이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지구사랑! 종이 사용을 줄임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 QR코드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A

<세종시정소식지> 독자마당은
'세종글꽃체'와 함께 합니다.

우리동네 인생샷 명소

세종시청에는 한글의 도시답게 특색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4층 세종책문화센터에서 훈민정음 고서와 근대 문학책도 볼 수 있고 물론 세종대왕도 볼 수 있어요. 집현전 느낌처럼 논문도 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1층 카페에서는 가성비 좋은 화장품, 카페 음료와 빵들을 구매할 수 있어요. 시청 지하에 구두수선집이 있고요. 세종시청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박주미(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세종시청 4층 세종책문화센터

소감 나누기

코로나19 이후 길어진 실내 생활이 계기가 되어 집에서 반려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증가해 "식집사"라는 말이 생겨나는 요즘, 세종시의 관광명소인 국립세종수목원이 소개하는 이달의 반려식물 정보가 봄을 맞이하는 식집사분들에게 안성맞춤 정보인 것 같아 반가움이 앞서고 앞으로 만날 반려식물도 벌써 기다려지네요!

주진희(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그동안 세종시닷컴이나 세종맘카페를 통해서만 세종시민들 살아가는 이야기를 알 수 있었는데, 소식지를 통해 세종시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분들서 목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어 인상 깊었습니다. 딱딱하게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닌, 살아 숨 쉬는 세종을 만난 거 같아 좋았습니다.

이진영(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세종시정소식지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매월 소식지를 읽고 난 후 느낀 소감이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또한 세종시 내 숨겨진 인생샷 촬영 명소를 사진으로 응모해주세요. '독자소감' 또는 '우리동네 인생샷 명소'로 보내주신 소중한 내용은 편집을 통해 독자마당 코너에 소개됩니다. 선정된 독자 여러분에게는 소정의 커피 쿠폰과 함께 '충녕 인형'을 보내드립니다.

소감 또는 인생샷 명소 사진 보내기

- ① 독자 소감·의견(200자 이내)
- ② 인생샷 명소 사진과 설명
- ③ 성함 / 휴대전화 번호 / 주소



소감 또는 사진 보내기 ▲

야간세무민원 상담실운영

야간에 세무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시간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 18:00~20:00 1인당 30분(무료)
상담분야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국세(양도소득세, 증부세 등)
상담장소	세종특별자치시청(보람동) 1층 민원실 내 무료법률상담실
상담신청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야간세무민원 사전예약
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세정과(☎044-300-3519)